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땅을 박차고 하늘까지 날아오를 듯한 늑름한 기상이 느껴지는 푸른 말, 청마(靑馬)의 해 갑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족의 역사에서 갑오년에는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에는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내겠다”는 발원과 의지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며칠 후면 설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 이웃에 기쁨을 더해주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한 해를 발원하면서, 귀한 날을 맞아 두 권의 책으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마음까지 편안히 해주는 치유(治癒)에 대한 요구가 커집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준 스님 네 분이 대중들과 함께 ‘내면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마음아 행복하여라』라는 작은 책으로 엮었습니다. 불교계를 넘어 수많은 사회 대중에게서 ‘힐링 멘토’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 스님들의 ‘힐링 여행’에는, 쏟아지는 장대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수천 명이 찾아와 귀를 기울이고, “아하!”하는 감탄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여러분들도 “아, 이렇구나!” 하면서 저절로 ‘힐링’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는 저명한 문학인들의 불교와의 인연 이야기를 담은 ‘구도 에세이’입니다.

“불교는 종교이며 철학이기 이전에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해 준 끈질긴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다. … 절에 가서 새소리, 물소리, 풍경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연처럼 내 귀를 뚫어 주는 것이 없구나 싶고, 풍경소리처럼 내 마음을 맑게 해 주는 것이 없구나 싶다.”

이 책에 실린 <부처님 법향이 그림다>의 일부인데, 공감하시는지요? 이 책의 필자 스무 분이 “문학으로 출가했다”고 하듯이 공직에서 예술에서 스포츠에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도 현재 머물고 계신 자리에서 나름의 출가를 꿈 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아 행복하여라』와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 이 두 권의 책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신나는 ‘설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정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